

Deloitte Insights

Image generated by AI

July 2026

5th Edition

글로벌 사이버의 미래 서베이 2026

사이버 보안의 5가지 패러독스

Deloitte Global

Deloitte.



서영수 파트너

Cyber& Resilience 서비스 본부장 |
Korea Cyber Service Lead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생성형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리스크는 더 이상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사고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AI 도입 속도에 비해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 공급망 보안 등 핵심 보안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보안 솔루션 도입을 넘어 사업 전략과 연계된 전사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와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이버의 미래 서베이 2026

서베이 개요



전 세계 43개국,
5개 산업군 및 23개 세부 산업에 속한
비즈니스·기술 리더 **1,058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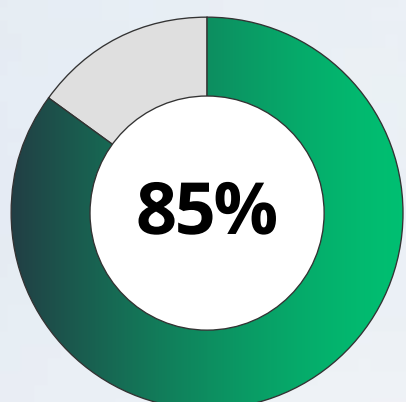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리스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9명의 C-Level** 경영진
인터뷰를 함께 반영



글로벌 사이버 보안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Parado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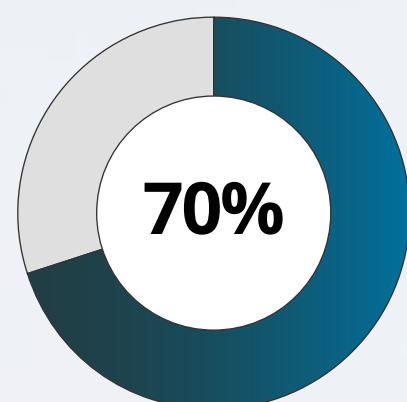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 자신감은 높지만, 실행 역량은 여전히 부족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한 자신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자신감과 실행 역량 사이의 갭

15%P 격차



실제 실행 수준 및
대응 역량

보안 체계 고도화, 남은 과제는 실행력 확보



보안 운영
체계 구축



보안 표준 및
정책 정착



침해사고
대응 체계 운영



임직원 보안
교육 확대

⚠ 여전히 남은 3대 취약 영역



비즈니스-보안
연계 부족

BISO* 구축 수준 63%



공급망·협력사
리스크 관리 취약
제3자 보안 리스크
모니터링 최저 수준



대응 역량 검증 부족
투자 확대 대비 실전 대응·
복원력 검증 미흡

* BISO: Business Information Security Office, 비즈니스 정보 보안 기능을 하는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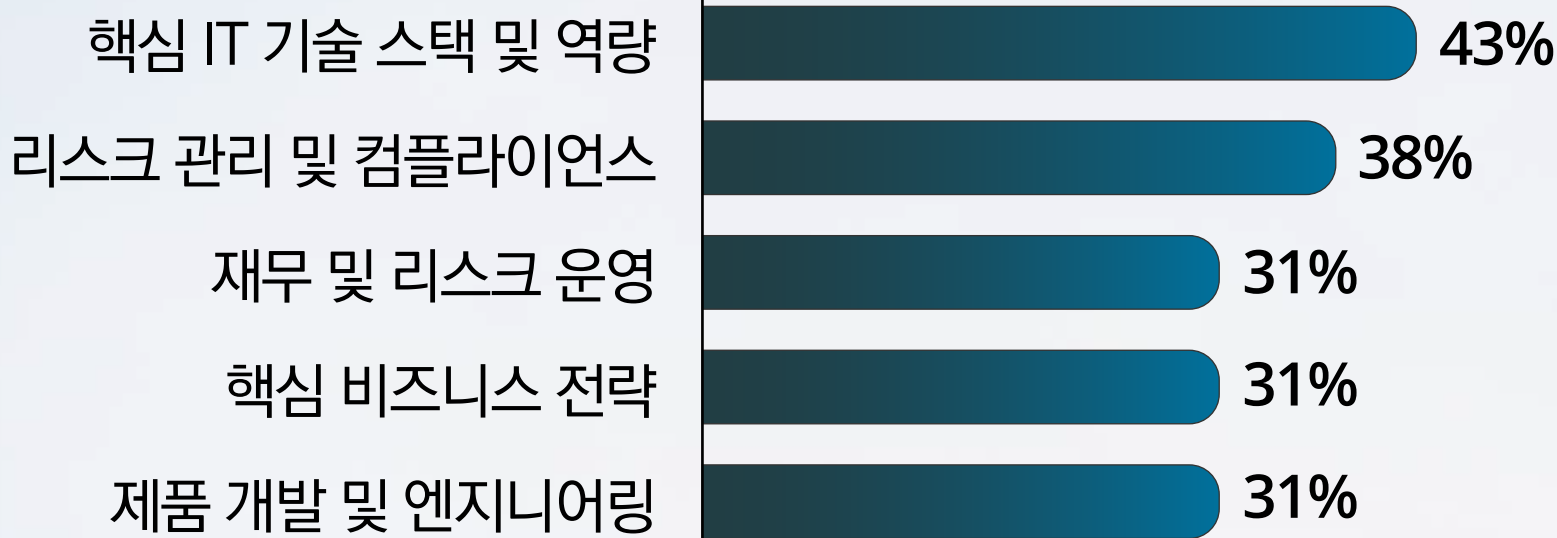
가장 위험한 보안 취약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착각

Paradox 2

높은 사이버 보안 전략 인식, 낮은 사업 내재화와 공동 책임

사이버 보안이 다른 비즈니스 영역과
'공동 KPI 기반' 완전 통합됐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항목, 통합 수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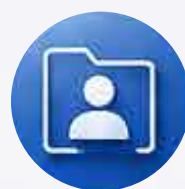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의 사업내재화와 공동 책임의식 부족



전략적 공감대 형성

- ✓ 경영진 인식 확대
- ✓ 전사 리스크 관리 (ERM) 중심 협업
- ✓ IT 전략 연계

실행 단계 영향력 제한



- ✗ 사업부 영향력 제한
- ✗ 기능조직 참여 제한
- ✗ Product 단계 내재화 미흡

기술 조직과의 연결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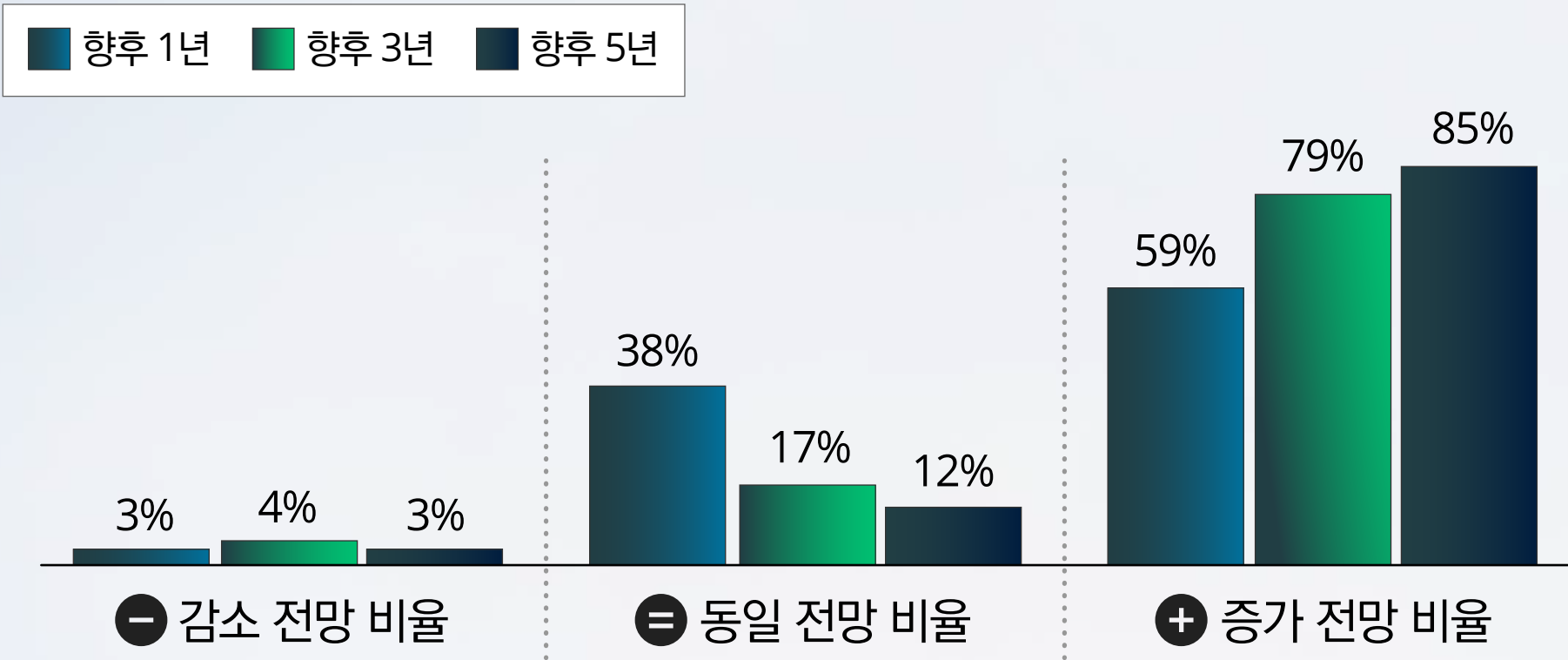
- ✗ CTO와의 협업 부족
- ✗ '공동 KPI' 기반 Joint Ownership 부족

사이버보안의 핵심 과제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및 기술 조직의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

Paradox 3

벤더 최적화 이슈와 보안 복잡성 심화의 공존

사이버 보안 관련 벤더 증감 예상 (향후 1~5년)



벤더 감축 요인

벤더사(파트너사) 통합

운영 복잡성 감소

관리 효율성 향상

비용(TCO) 절감

'사이버 보안 통합 플랫폼'
중심 운영

VS

벤더 증대 요인

사이버 위협 관련
AI·신기술 확산

새로운 보안 기능 필요

신규 벤더와의 협업

벤더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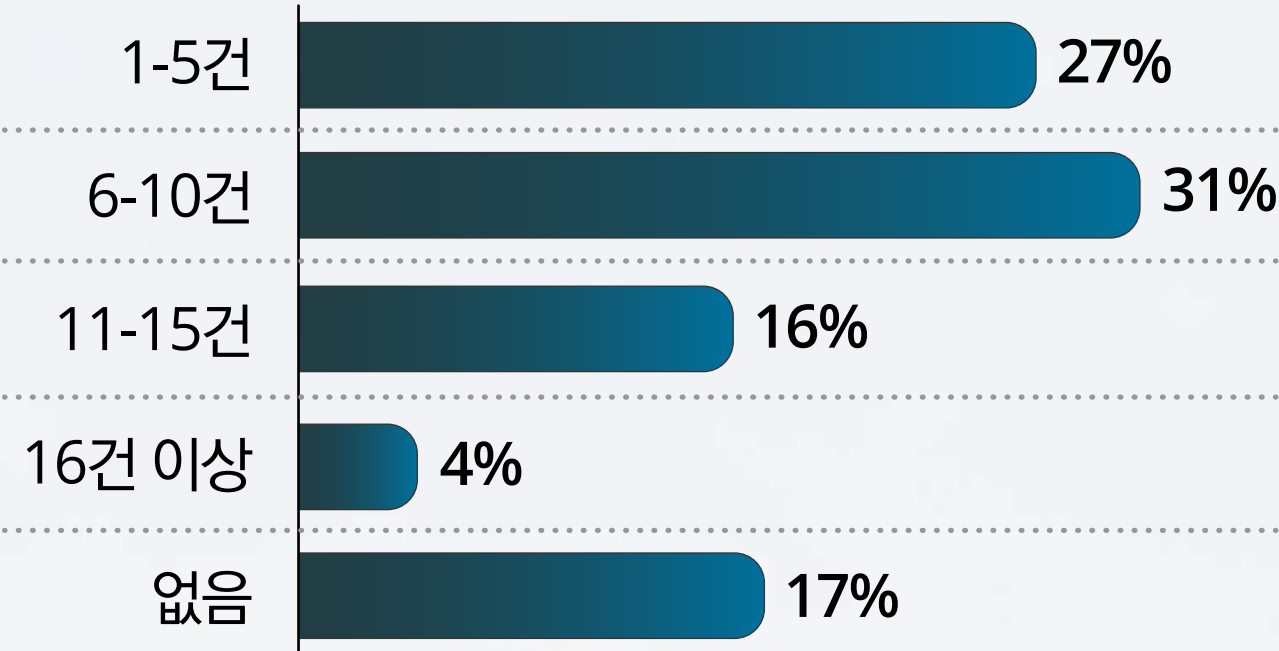
벤더 수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과 리스크를 반영한
벤더 포트폴리오 최적화

Paradox 4

‘상시리스크’로 부상한 사이버 침해,
‘침해 제로’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침해 사건 건수
(전년 기준)



사이버 보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필요

기존 관점
예방 중점

사이버 보안 침해
지속적 예방

침해 건수 감축

보안 성공

관점의
전환

새로운 관점
회복력 중점



침해는 지속 발생한다는
현실 직시



빠른 탐지·대응



영향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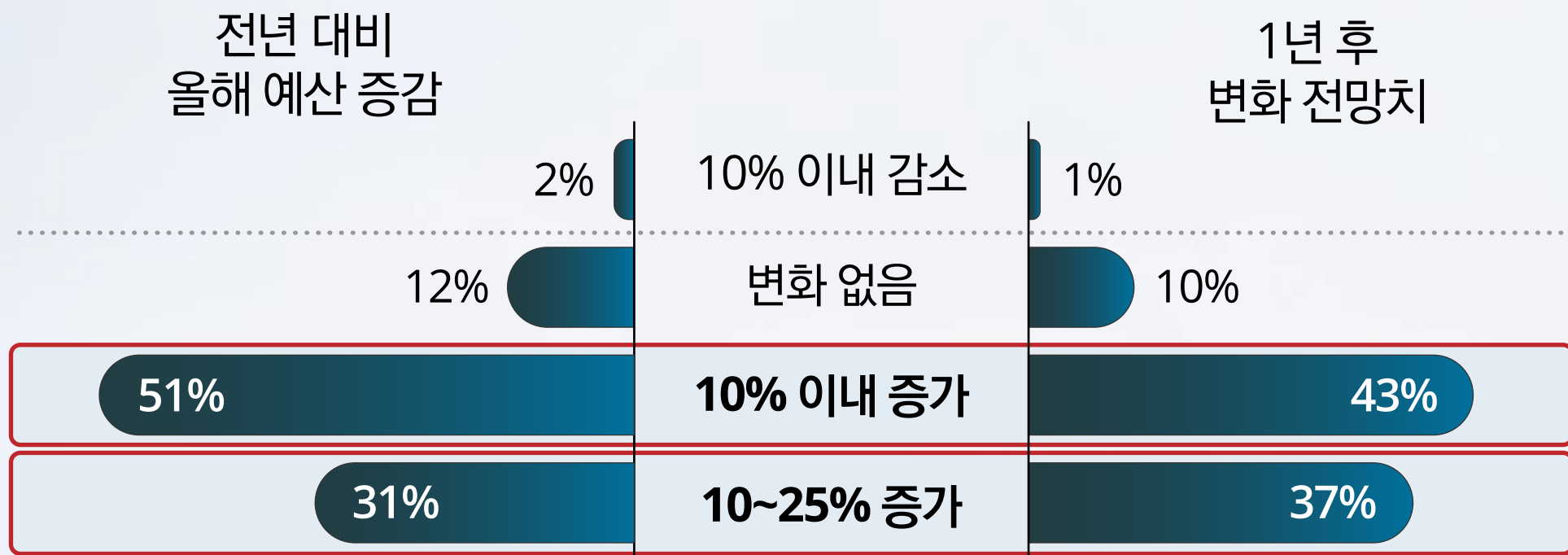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사이버 보안의 핵심은
예방 보다 회복탄력성

Paradox 5

예산 안정성 vs. 사이버 위협 환경 급변, 대응형 투자 체계 도입 필요

조직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편성



큰 변동이 없는
고정형 예산 수립

기업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운영 방식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한
예산 편성

크게 변하지 않는 예산액

안정적 예산 운영

VS

급변하는 환경 대응을 위한 유연한 대응형 예산 투자

새로운 공격 방식 등장과 진화

새로운 예산 투자/관리 방식필요

- 롤링 예측 기반의 예산 관리
- 상시 예산 운영 체계도입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발맞춰,
고정형 예산에서 유연한 투자 체계로의 전환 중요

사이버 보안의 패러독스와 기업의 대응 방안



사이버 보안 운영/관리/투자 측면의 패러독스

기업의 대응 방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실행 역량과
통제 수준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

실행 중심의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고도화

경영진의 지원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사업부·기술 조직까지 연결되는
공동 책임 체계는 미흡

Joint Ownership 및
Security by Design 내재화

운영 효율성을 위해
벤더는 통합해야 하지만, 새로운 위협은
지속적인 벤더 확장을 요구

전략적 관점에서의
벤더 포트폴리오 최적화

침해를 완전히 막는 것보다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

Cyber Resilience 및
대응·복원 역량 강화

고정형 예산 체계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과
기술에 대응하기 어려움

유연한 예산 운영 및
투자 체계 구축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One Cyber & Resilience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사고는 단순 기술적 사고가 아닌 사업 연속성을 크게 훼손하는 비즈니스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략수립, 규제/법규 준수, 위험 및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사고 대응,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등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One Cyber & Resilience 그룹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관리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백철호 부대표
One Cyber & Resilience 리더

☎ 02 6676 2250
✉ cbaek@deloitte.com

서영수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 02 6676 1929
✉ youngseo@deloitte.com

유선희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 02 6676 2956
✉ sunhyou@deloitte.com

문범석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 02 6676 3687
✉ bsmoon@deloitte.com

이창성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 02 6099 4888
✉ changsulee@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Manager
wonsukyang@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